4·9 총선 광주·전남 누가 뛰나 ❷ 광주 북구

박지원 변수… 장병완 출마 행보

입지자 10여명 넘어… 거물급 인사 격돌

김동신-김재두씨 민주당 공천 티켓 경쟁

북갑 지난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을 등에 업고 6선의 거물인 김상현 의원을 누르고 국회에 진출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강기정 의원이 수성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학생 운동권 출신답게 지난 4년 동안의 강 의원은 진보 성향의 의정 활동을 보여 왔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막판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저격수로 활약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생활에서 운동권 이미지를 탈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 북 갑에는 10명이 넘는 예비 주자 그룹이 형성되면서 광주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예비 주자 그룹에서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 관료사회는 물론 광주 재야 그룹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장 장관의 출마 여부에 따라 광주 북 갑의 총선 구도는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 장관은 오는 1월 중으로 18대 총선 출마 여부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정계에서는 지난 연말 복권된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북 갑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출마가 이뤄진다면 광주 북 갑의 경쟁 구도는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젊은 총장의 이미지로 북 갑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임현모 광주교대 총장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 3년동안 민주당 광주 북 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지역을 다져온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도 중량감있는 예비주자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세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지역 조직 장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김상현 의원과의 경선에서 아깝게 탈락한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민주당 공천 티켓을 놓고 김동신 위원장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여기에 조기선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 등 전문직 출신도 광주 북 갑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자로는 이가연씨가, 민주노동당 주자로는 당직자 출신의 이봉훈씨가 거론되고 있다.

김태홍 수성에 임내현 강력 도전

김재균·이형석씨 출마…임상규씨 다크호스

민주·한나라·민노당 후보도 표밭 일구기

북을 재선의 김태홍 의원이 수성에 나서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 의원은 정계에 입문한 뒤, 광주시 북구청장, 광주시 정무부시장에 이어 16대와 17대 국회에 잇따라 진출했다.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그동안 보안법 폐지, 한미 FTA 반대 등 굵직굵직한 국내 현안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 재선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리더십은 그리 돋보이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 북을은 18대 총선을 노리는 입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우선 광주 북 을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주자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임내현 변호사다.

광주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바 있는 임내현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답지 않은 소탈한 성품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1년 전부터 바닥 민심을 다져왔다.

특히, 임 변호사는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의 부정선거감시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동영상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김재균 전 북구청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출신의 이형석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강력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북구청장을 연임하며 북구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김 전 청장은 당초 북 갑 도전이 유력했으나 최근 북 을로 지역구를 옮겼다.

그러나 북구청장 퇴임 이후 잇따른 정치적 실기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형석 비서관은 최연소 광주시의회 의장 출신답게 특유의 친화력과 뚝심으로 무장, 바닥 민심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도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의 출마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억 전 시의원도 나름대로 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탄핵의 후폭풍으로 아깝게 탈락한 최경주 광주시당 위원장이 지난 4년 동안의 절치부심끝에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수 전 무등일보 사장도 예비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지는 미지수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 북갑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 주자로는 김천국씨가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후보로는 김현정씨가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도약을 기원하며 3천여명의 광주시민들이 1일 새벽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신년 축제'에 참석, 새해 첫 눈을 환호성으로 맞이하며 올 한해 '안녕'과 '도약'을 기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총선전 얼굴 알리자" 출판기념회 봇물

9일까지 기념회 가능

후원금 모금 수단 활용

18대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역의원은 물론 정치신인들도 저마다 총선을 겨냥해 '의정활동 및 정치철학 홍보', '얼굴 알리기'의 장으로 출판기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시기상으로도 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돼, 총선 출마 예정자는 오는 9일까지만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다. 출판기념회는 또 후원금 모금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중앙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거물급 정치신인들을 중심으로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에 출마의사를 밝힌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오는 7일 오후 3시 광산구 콜럼버스 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심 전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제목의 자전에세이를 소개하고, 출마의사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동구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 박주선 전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동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박주선의 아름다운 부활' 출판기념회를 갖고 출정식을 대신한다.

또 광주 북을에 출마 예정인 임내현 변호사도 오는 8일 오후 4시 운암동 그랑시아 웨딩타워에서 '섬기는 일꾼 임내현의 행복한 세상만들기'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광산에 뜻을 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오는 7일 오후 6시30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대한민국 희망보고서-초일류 국가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을 소개한다.

또 김영록 전남도행정부지사는 9일 오후 2시 완도군민회관에서 '나를 키워준 건 8할이 바다였다'는 책을 소개하며 강진·완도 출마의지를 다짐할 예정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광주 북갑에 뜻을 두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현역 장관으로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출판기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출마를 선언한 의사들도 출판기념회 개최 대열에 합류했다.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은 4일 오후 2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성형외과 전문의 오형근의 세상읽기'를, 그리고 서정성 광주 아이안과 원장은 5일 오후 4시30분 문성고 대강당에서 '꿈을 가진 사람 서정성의 세상읽기'를 각각 소개한다.

또, 김승남 전 전남대총학생회장도 6일 오후 2시30분 광주디자인센터 시청각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주의 내일'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소개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화갑·박지원 명예회복?

지난해말 사면·복권 총선 출마 주목

지난해말 참여정부 마지막 특별 사면·복권에 따라 '정치적 족쇄'가 풀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일 전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총선을 앞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 진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총선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구랍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5년은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이었지만 이번 복권 조치를 새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박 전 실장이 조만간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진도 출신의 박 전 실장이 해남·진도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고교시절을 보낸 목포시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광주 북 갑 및 남구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도 관심사다. 지난달 31일 중국으로 출국한 한 전 대표는 오는 4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사면·복권과 관련, 소감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극복을 계획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국민께 다가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재입당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상천 현 대표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데다 민주당에 다시 합류하더라도 당내 입지가 보장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4월 총선 출마에 나선다면 지역구는 목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정일 전 의원도 해남·진도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동안의 반성을 토대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혀, 총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불법도청이라는 꼬리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임동욱 기자 tuim@